

#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贏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대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 대중회 상임집행부 구성 및 위촉장 수여

2026년 4월 13일 11시, 대중회 소회의실에서 제 13대 후기 회장 취임에 따른 상임 부회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중회 부회장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된 가운데, 국민의례와 상임부회장의 선출에 따른 회장의 인사가 있는 뒤, 상근부회장에 출마한 좌통례공과 주홍 부회장과 참판공과 용 부회장의 간단한 후보자별 소신 발표가 있는 후, 경선 투표를 거쳐 신임 대중회 상임 부회장으로 주홍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대중회 상임부회장은 부회장회의의 추천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장의 임명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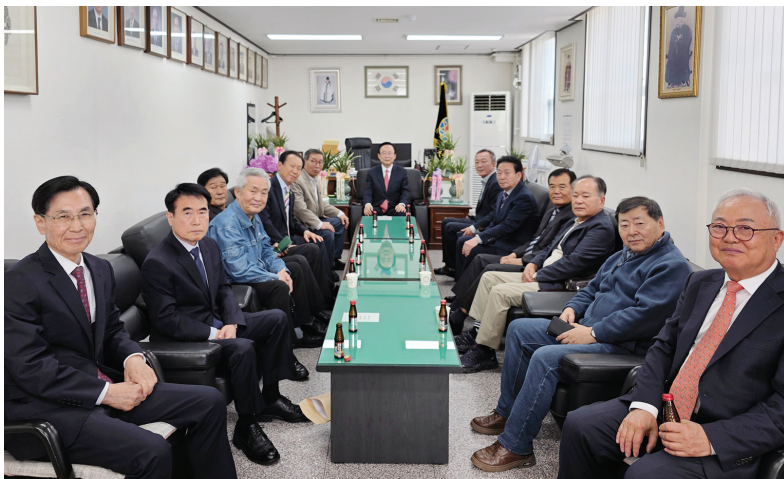
이어서 상임부회장 추천을 받은 대중회는 4월 17일 대중회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상임집행부 구성을 위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미 추천된

상임부회장과 각 지파 종회에서 추천된 상임이사 후보자들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되었다. 지난 4월 13일 부회장회의에서 추천받은 신임 주홍(24대) 상임부회장은 좌통례공과 부사공종회 회장, 재경화수회 재무이사, 제13대 전기 대중회 재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종회의 발전과 종인들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 총무이사에는 광원군과 도정공종회 양재(21대) 전 회장이 연임되었으며, 재무이사에는 문숙공과 용문(20대) 전 대중회 감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문화이사에는 재경화수회 산악회 회장으로 종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데 앞장서 온 문경공과종회 종덕(22대) 총무가 선임되었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중회 주영 회장은 “향후 우리 대중회는 삼성동 수도빌딩 재건축사

업, 인터넷 전자 족보의 발간 추진, 둔촌선생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 대중회 규약과 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등 현안 문제가 많은 시점에 있으므로, 상근 임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이제 대중회는 상임 임원들의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초 선대 묘소를 찾아 성묘 겸 고유를 하고, 지파 종회를 방문하여 약식 보고와, 대중회 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로운 임원들로 구성된 대중회는, 앞으로 산재한 업무를 처리하고, 종원 간 화합을 도모하며, 대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잘해 나가리라 다짐하면서, 우리 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대중회 추천 상임 부회장 선출회의



제13대 후기 집행부(왼쪽부터 이종덕, 이주홍, 이주영, 이양재, 이용문)



대중회 단신



추모재 창호 도배공사 완료

둔촌 재실 추모재(하대원동 둔촌대로 320) 창문의 창호지가 오래되어 뜯어지고 구멍이 생겨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색이 변색되어 5월 1일~2일 이틀간 창문 도배를 완료하였다.



시조비 묘소 사초

하남 시조비(인화이씨) 묘소 봉분의 경사가 심하여 흙이 흘러 내리고 잔디가 고사하여 봉분 사초 및 묘소 입구 계단의 훼손된 단석을 4월 6일~7일 이틀간 보수 완료하였다.



봉서정 정지 작업 완료

봉서정(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마당의 굴곡이 심하고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4월 26일 수로를 개설하고, 정지 작업을 완료하였다.

지파총회 소식

사인공파총회 소식

2026년 사인공파총회 간담회 개최

사인공파총회(회장 재래)는 2026년 4월 29일(수) 10시 30분에 창녕군 창녕읍 당산길 10 소재, 운곡재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100세가 넘으신 용달 원로분을 비롯한



다수의 원로분과 임원진이 바쁘신 와중에도 경향 각지에서 참석해 주셨다. 총무이사 사회로 회

장 인사말에 이어 그간의 집행부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후 사인공파총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보고와 조언이 이어졌다. 특히 15년 이상 개정이 없었던 사인공파총회의 개정 규약 초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 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시간 이상의 간담회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아쉬운 석별을 하였다.

- 사인공파총회 총무이사 창욱(학재) 記

총회공종회 소식

총회공(諱 仁孫)선조님 학술대회 및 대동제 개최 예정

광주이씨 총회공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6년 4월 28일(화), 5군 지파 종회 회장 그리고 총무이사 참석하신 가운데 확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공 선조님 학술대회 및 대동제를 2026년 11월 27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임원회의에 제안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나 시행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마침내 2026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얻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총회공 선조님의 위상을 드높이고 후손에게는 명문가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는 물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타성에게 당당하게 조상님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총회공 후손들은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기타 내용은 앞으로 회보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 총회공종회 총무이사 응재 記

광릉부원군파총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총회 화수회 춘계 야유회 개최

광릉부원군파총회 화수회(회장 종봉)에서는 2026년 4월 26일(일) 화수회 춘계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50여 명의 회원들은 아침 일찍 명일동 종회 사무실에 집결하여 차(茶)담회를 가진 후 9시 정각 버스에 탑승하고 행선지인 여주로 출발하였다.

시원한 봄바람을 가누며 한 시간을 달려 총회공 선조님 묘소에 도착하였다. 회원들은 선조님 묘소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에 문수 총무이사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진설하였고 이후 묘전에 모인 회원들은 문수 총무이사의 진행에 따라 내빈 소개, 종봉 회장 인사, 대중회 前 용두 상임 부회장 인사, 그리고 문수 총무이사로부터 총회공 선조님 행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종봉 화수회 총무의 약식



흥기에 따라서 종봉 회장이 헌악을 하였고 이어서 광명종회 양수 부회장, 경기 광주 무갑리 종

회 주혁 회장, 백래 경기도 前 도의원 순으로 헌작하였다.

참배를 마친 회원들은 영릉(세종대왕릉)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조성문(여주 문화원 역사연구소장) 해설사의 안내로 세종대왕릉 천장에 관련한 내용과 세종대왕 재위기간 많은 업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오전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식당(왕터 민물 매운탕)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친 돈목의 시간을 보낸 후 마지막 행선지인 황학산 수목원을 찾았다.

맑은 공기와 만개로 장사진을 이룬 각종 꽃을 벗 삼아 사진에 담는 등 회원들은 저마다 바쁜 일

정을 소화하였다. 회원들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경하였다. 끝으로 바쁜 일상에도 자리를 함께한 광주 무갑리 종회 주혁 회장 외 10명의 종친께 감사드리며 또한 화수회 종권 고문 내외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 대사헌공(휘 세필) 행장판 설치

경기도 광주 무갑리 종회(회장 주혁)에서는 2026년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대사헌공(휘 세필) 제단을 정비 보수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무갑리 종회 주혁 회장을 비롯해서 청장년 15명은 제단에 잔디를 이식하고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였다.

이후 회원들은 대사헌공 선조님 행장판을 제작하여 세우고 늦게나마 선조님께 효행을 다하였다. 한편 대사헌공께서는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차자로 출생하여 1472년 장례원 사의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사헌부 장령, 의정부 검상, 영안도 첨마 별감, 사간원 사간, 동부승지, 그리고 사

간원 대사간에 제수 되었다.

1486년 한성부 좌윤과 가선대부 호조참판, 1487년 사헌부 대사헌에 오르셨다. 이어서 가선대부 동지충추부사가 되셔서 중책을 띠고 명나라에 사신(上尊侍使)으로 가시던 도중 신병을 얻어 1488년 윤 1월 2일 중국 요동에서 졸(卒)하시었다. 묘소는 인천시 부평구 작전동에 있었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아쉽게도 실전(失傳)되었다. 끝으로 무갑리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記

### 문경공파종회 소식

#### ■ 동고 상공(諱 俊慶) 한식 제향 봉행

문경공파 동고종회(종회장 성수)는 광주이씨 중 유일하게 종묘(宗廟) 선조대왕 묘정(廟廷)에 배향(配享)되어 계시는 충정공(忠正公) 동고(東皐) 상공(相公)의 한식 제향을 4월 6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구정승골 충정사(忠正祠)에서 봉행하였다.

이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충희공종회 경래 전 회장, 웅재 총무, 승재 재무, 종웅 감사, 관찰사공종회 종우 총무, 진호 재무,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 문경공파종회 종민 회장, 경수 전 회장, 종덕 총무, 광천부원군파종회 종두 회장, 종준 부회장, 종성 전 부회장, 영래 총무,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용철 전 회장, 웅재 총무, 용춘 재무, 도정공종회 종찬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근한 회장, 시하 총무, 무환 화수회 회장, 참판공파종회 응호 부회장, 용 前 총무, 좌통례공파종회 종현 총무, 통제사공종회

대래 총무, 문경공파 승덕재종회 상훈 회장, 영희 총무, 양호당종회 유래 회장, 화래 부회장, 참판공종회 문재 회장, 서울청장년회 흥수 회장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하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의 분정에는 초헌관에 성수 동고종회 회장, 아헌관에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종헌관에 종민 문경공파종회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 영재 현종, 축에 종길 현종, 집사에 웅재, 종국, 종덕, 영희 현종이 맡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였다. 이어서 상공의 큰 아드님인 창수공(諱 禮悅) 선조 한식례를 봉행하였다. 이때는 초헌관에 좌승지공종회 기수 회장, 아헌관에 현감공 안성종회 정태 현종, 종헌관에 양호당종회 화래 부회장이 헌작을 하였다.

제례 봉행을 마친 참석자들은 양수역 근처에 있는 식당 평창국밥에서 식사를 겸하여 음료와 주류를 나누면서 오랜만의 회포도 풀고 덕담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종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즐겁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한식 제향을 마무리하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날의 행사를 마쳤다. 특히 비



예보가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선조의 은덕으로 제례를 마칠 때까지 큰비는 오지 않아 무사히 제례 봉행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선조의 큰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끝으로 이번 한식제향을 봉행함에 있어서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근으로부터 제례에 직접 참석하시어 향축금을 헌작하여 주신 대종회 주영 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전회장, 관찰사공종회, 5군 지파종회, 참판공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 좌통례공파 통제사공종회, 승덕재종회, 양호당종회, 현감공 안성종회, 도정공종회, 서울청장년회 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문경공파 동고종회 총무 건수 記

#### ■ 2026년 인산사(仁山祠) 춘향제 봉행

문경공파 우천공종회(회장 종위)에서는 4월 3일(금), 전북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에 위치한 인산사(仁山祠) 사우(祠宇, 조상의 신위를 모셔놓은 집)에서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인산사는 문경공파조의 증손이며, 조선 중기 학자이고,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기묘록(己卯錄)에 올라있는 우천공(諱 若水) 선조를 기리기 위한 사우로, 속



종 때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선조의 묘 아래에 우정사(牛井祠) 사우를 세우고 춘추향

사(春秋享祀)를 봉행하여 오다가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50년에 자손이 세거하는 이곳에 규모를 갖추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향사는 전북 고창군 무장향교(전교 오군호)의 유림들의 주관하에 아침 일찍부터 제물 준비, 분정, 진설하고 유림 전통 의례에 따라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으며, 초헌관에는 무장유도회 이준재 前회장, 아헌관에 무장유도회 오자환 회장, 종헌관에 고창군 오영택 전 기획실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 현작하여 주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따스한 초봄에 고창군 무장 유도회 유림들과, 고창군 유기상 전 군수, 광주이씨 대종회 주홍 재무이사, 문경공파종회 종민 회장, 고창군지역 화수회 종해 회장, 경향 각지에서 우천공 후손 등 약 50여 명이 제향에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제향을 통해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유배되자, 소두로 성균관 유생 150여 명을 이끌고 대궐에서 호곡하실 정도로 강직하신 성품과, 이로 인하여 힘드셨을 옥고 및 유배 생활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제례를 마친 후 준비한 도시락으로 늦은 점심을 하면서 선현들의 학문과 덕행을 되새기며, 지역 문화 유산의 소중함과 계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2026년도 우천공 선조 향사를 주관해 주신 고창군 무장향교 유림 관계자분,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종인 모두에게 종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牛泉公(諱 若水) 행장

우천공(諱 若水) 선조님은 문경공 파조님의 증손으로 1486년(성종 17년)에 태어났으며 1531년

(중종 26)에 졸(卒)하였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고, 자는 지원(止源), 호는 우천(牛泉)이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현감 이자(李滋)이고, 어머니는 광주안씨(廣州安氏)로 사간 안팽명(安彭命)의 딸이다. 1510년(중종 5)에 생원(生員)이 되었고, 1518년 성수침(成守琛)·서경덕(徐敬德) 등과 현량과(賢良科)에 별천(別薦, 고위직 친인척의 천거로 벼슬에 오름)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성균관(成均館)에서 학업에 전념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趙光祖)가 유배되자 소두(疏頭)로서 성균관의 유생(儒生) 150여 명과 함께 궁궐에 나아가 호곡(號哭)하니 곡성(哭聲)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중종이 진노하여 말하기를, "유생들이 대궐앞에 와서 호곡하는 일은 천고(千古)에 없는 일이라." 하여 잡아들이니, 공(公 이약수)은 대답하기를, "옛날에 양진(楊晨, 24~125년, 후한 초기~중기의 관료)이 죄수로 잡히니 태학의 유생 3,000여 명이 대궐에 나아가 호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오늘의 일이야말로 천고에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니 유혈이 낭자하였다. 유생들과 항소(抗訴)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윤언직(尹彦直)·홍순복(洪

舜福)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1521년에 평해(平海)로 유배(流配)되었다가 10년 만인 1531년 4월에 예산(禮山)으로 이배(移配, 귀양살이 하던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되고, 같은 해 8월 19일에 적소(謫所, 귀양지)에서 죽었다. 사림회(士林會)에서 장사 지냈으며, 그 이름이 기묘록(己卯錄)에 올라 있고 우천유고(牛泉遺稿)가 간행되었다. 1605년(선조 38)에 정암 조광조 제현들과 동시에 신원소설(伸冤昭雪, 원통함을 풀어 없앴)되어서 관찰사 민유중(閔維重), 판서 홍하석(洪夏錫) 등이 묘를 사초(莎草)하고 치제(致祭)를 올렸다.

1708년(숙종 34년)에 판서 박태세(朴泰世), 관찰사 이석복(李錫福), 생원 윤규령(尹奎齡) 등 사림 300여 명이 주관하여 대흥현(大興縣)의 이약수(李若水) 묘 아래에 광주이씨(廣州李氏) 사우(祠宇, 조상의 신전을 모셔놓은 집)인 우정사(牛井祠)를 세우고 춘추향사(春秋享祀)를 하였는데,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50년에 자손이 세거하고 있던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에 규모를 갖추어 인산사(仁山祠)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문경공파 우천공종회 총무 종을 기

■ 구계서원(龜溪書院) 춘향제 봉행

2026년 5월 3일(음 3월17일) 동고상공(諱 浚慶)이 주벽(主壁)으로 배향된 구계서원 춘향제가 봉행되었다. 동고종회 임원들은 며칠 전에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51-5 소재 구계서원을 방문하여 내외부 청소 및 주변 정비를 하였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일찍 서원에 당도하여 준비해간 제물로 주북 현종이 진설을 마치고, 여타 배향 선생들의 후손들도 도착을 하여서 이십여 명이 참석하였다. 약 1시간에 걸친 봉행을 마치고 참석자 모두 인근의 "잠두봉 갈비탕" 식당으로 옮겨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구계서원은 조선조 광해군 5년(1613년)에 낙재 서사원(樂齊 徐思遠), 수암 박지화(守庵 朴枝華),

서계 이득운(西溪 李得胤) 3선생을 모시는 서원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석곡리에 건립되고, 그 후 현종 7년(1666년)에 동고상공을 주벽(主壁)으로 배향하였다. 그러나 고종 6년(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1871년에 훼철되었고, 1955년에서야 충북 유림의 뜻을 모아서 괴산군 송면에 있던 동고정사(대대로 이어온 동고종가) 건물의 일부를 해체하여, 지금의 위치로 재 창건하였다. 이후 1982년에 동고상공의 15대 손인 고운 이종욱(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건축비용을 출원하여 재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구계서원을 2015년 4월 17일 청주시 향토유적 유형문화재 제76호에 지정하였다. 그동안 구계서원의 춘향제(음력 3월 17일)는 청주 유림에서 주관하여 봉행하였으나, 2018년도



부터는 관리와 재정 문제로 인하여, 동고종회 주관 하에 배향자 후손들이 봉행하고 있다.

이날 동고종회장 성수는 인사말에서 말은 바동고상공 및 배향되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동고상공 후손의 주관 하에 배향자 후손들과 협심하여 춘향제를 엄숙히 모시자고 당부 하였다.

- 동고종회 총무 건수 기

광천부원군파종회 소식

■ 2026년 광천부원군파종회 전반기 제례교육 실시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종두)에서는 2026년도 사업(행사)계획에 따라 전반기 제례교육을 4월 29일에 실시하였다. 종회 산하 6개 문중에서 추천된 종인 30여 명은 광주 광천부원군 묘역 재실 '영모재' 에서 제례 즉 불천위제(不遷位祭) 바로 알기를 시작으로 1교시 보학 강의, 2교시 제례



(실전) 연습과 총정리로 제례 교육을 마쳤다.

광천부원군 파조의 불천위제(서세 532주기)가 2026년 5월 11일(월)로 다가옴에 따라 후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차질없는 제례 봉향을 위해 종

회 영래 총무가 강의를 하였다. 미리 준비한 자료(不遷位祭, 祝文, 笏記)를 보면서 불천위와 불천위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축문, 흘기에 대한 뜻과 의미를 숙지하고 제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이어진 제례 실습에서는 6개 문중에서 한 사람씩 추천, 집사 배정 후 연습을 하였고, 다가오는 불천위제는 예와 정성을 다하여 봉향할 것을 다짐하며, 서로 응원하는 박수로 교육을 마쳤다. 교육 종료 후에는 광주시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가벼운 반주를 곁들인 식사 후 이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영래 기

### ■ 수원종회 화수회 <광이회관> 방문

광천부원군과 수원종회 화수회(회장 완길)는 4월 19일(일) 정기적인 모임으로 회원 10명이인 사동에 소재한 광주이씨 회관을 둘러보았다.

마침 일요일이라서 사무실은 방문을 못하고 회관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였다. 회관을 처음 온 회원도 있어 새로운 감회를 느꼈으며 서로의 선조님에 소견을 나누며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이어서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인사동 거리를 투어하였고, 잠시 유명한 낙원떡집을 들러 선물용으로 맛있는 한 케이스를 구매하여 회원에 나

누어 주고, 미리 준비된 맛집인 전통 한정식에서 오찬을 하면서 화기에애한 담소를 나누고 회원간의 돈목과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찬 후에는 우리나라의 5대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관람하고 전통적인 역사 현장과 역사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늘은 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인 29도가 넘는 무더운 날에도 참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되어 의미있는 시간 여행을 갖게 되어 감사를 표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 수원종회 화수회장 완길 기

### 광원군파종회 소식

#### ■ 광원군 서세 523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원군파종회(회장 석래)는 2026년 4월 15일(음 2월 28일), 충희공의 4남이신 광원군(諱 克墩) 서세 523주기 불천위제가 재실 매송헌(梅松軒)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51-3)에서 약 60여명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되었다. 출지도 덤지도 않은 포근하고 화창한 날씨에 11시부터 응재 총무의 진행으로 참석내빈 소개와 광원군파종회 석래회장, 대종회 주영회장의 인사가 있는 뒤 분정 발표가 있었다.

초헌관에는 광원군파종회 회장이신 석래회장, 아헌관에는 대종회 주영회장, 종헌관에는 좌의정 공파종회 근환회장이 헌작하였다. 행장은 광원군파종회 윤재 문화이사가 알아듣기 쉽게 낭독해 주었고, 축에는 대종회 전 결재 총무이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그리고 구성진 음률을 담아 낭독하였다, 집사에는 도정 공종회 용각, 부사공종회 용각, 감사공종회 용백, 감사공종회 찬수 종인이 수고하였고 집례에는 감사공종회 용인이 수고해 주었다.

화창한 날씨에 엄숙하게 제례를 봉행한 후 선조들의 음덕을 듬뿍 받은 후손들은 봉달이설령

탕(경수대로 1076)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후 광원군파종회에서 준비한 수건과 등산양말 그리고 봉송을 담은 가방을 하나씩 증정받았다.

#### 광원군 휘 극돈(諱 克墩) 행록

공의 자는 사고(士高)이고 호는 사봉(四峰)이며 충희공(忠僖公) 인손(諱 仁孫)의 넷째아들로 탄생하였다. 유시(幼時)로부터 의모(儀貌)가 웅위(雄偉)하고 성장하여 동지(動止)가 유도(有度)하여 성품이 항직(亢直)하였다.

세조 3년 정축(丁丑 1457)에 문과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 박사(博士)에 이르고,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을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으로 이조·예조좌랑, 동부승지, 병·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연달아 예문관제학(藝文館 提學)을 거쳐, 세조 14년 무자(戊子 1468)에 중시(重試)를 아원(亞元)으로 급제하고, 도승지(都承旨)에 직배(直拜)되었다가 대사헌·형조참판을 역임하고 성종 2년 순성 명량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弘化佐理功臣)에 책훈(策勳)되었고 광원군(廣原君)에 훈봉(勳封)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평안도 및 전라도의 진휼사(賑恤使)로도 활약하였고, 외직(外職)으로 평안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관찰사(觀察使)를 지냈다.

성종 14년 계축(癸丑) 3월에 이조판서 겸 동지 의금부사(吏曹判書 兼 同知義禁府使)가 되어, 내



직(內職)으로 들어와 종일품(從一品)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 세자 우빈객(世子右賓客)으로 올랐다. 전고(典故)에 통찰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실무에도 밝고 정밀하여 적지 않은 치적이 있었으며, 성품이 엄격하였다. 이른바 훈구파(勳舊派)의 거두로서 성종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림파(士林派)와 자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왕명으로 서거정(徐居正), 정효항(鄭孝恒) 등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였으며, <세조실록(世祖實錄)>의 편찬에는 동지관사(同知館事)로, <성종실록(成宗實錄)>의 편찬에는 지관사(知館事)로 참여하였다. 연산군 9년 계해(癸亥 1503) 2월 28일에 우가(于家) 병졸(病卒)하니 향년이 69세이다. 중종 28년 계사(癸巳 1533)에 익평(翼平)이란 증시(贈諡)를 내리고, 선조조(宣祖朝)에 세사부조지전(世祀不祧之典)으로 전교(傳教)를 받았다. 광이 팔극조정(廣李八克朝廷) 당시의 팔종형제(八從兄弟)분들 중 다섯 번째 집이다.

#### ■ 병사공(兵使公, 諱 相頊) 숨결을 찾아 유적지 성지순례

광원군과 도정공종회 화수회인 도화회 회원 40여 명은 2026년 4월 18일 ~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선대조의 숨결이 서려 있는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兵營城)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강진 병영성은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병영으로, 전라도 군사 책임자(병마절도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관청·지휘 본부로서, 병력·군수

품 집결과 지휘·통제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이곳을 순례지로 택한 이유는 도정공(휘 세륜)의 6대손 병사공(휘 상욱)께서, 숙종 43년 전라 병마절도사를 제수받아 부임하여 근무했던 곳으로, 순례를 통해 선조의 얼과 정신을 이어

받고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병사공께서 이곳에 있을 때 대기근으로 고통에 시름하며 굶어 죽어가는 군민들에게, 군량미를 풀어 구휼하고, 굶어 죽은 군민의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모아 굶주림을 해소하여 준 것에 감사하여, 온 군민들이 뜻을 모아 선정비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도화회 회원들은 선조의 발자취를 찾아, 훌륭한 업적이 숨 쉬는 강진 병영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로 뜻을 모으고, 1년여 간 준비하여 왔다. 4월 18일 아침 8시, 40여 명의 도화회원들을 싣 채운 관광버스는 독섬전철역을 출발하여 전남 강진으로 향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도정공의 만형이신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 도정공 바로 손위 형

인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이 동행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영재 병사공종회 감사는 70만원의 참조금을, 사복시정공종회 용구 임원은 30만원을 찬조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대신하였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해남의 부근이기에 처음 가보는 종인들이 많아, 여로 중에 문화 유적 및 관광지를 방문기로 하였다. 강진군 도암면 다산 정약용 유배지, 그리고 일제시대 시(詩)로써 울분을 삭힌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김영랑 시인 생가, 고려시대 도자기의 80%를 만들었다는 강진 대구면 청자촌 고려청자박물관, 그리고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에 있어 이름 붙여진 장흥군 정남진(正南津)을 둘러본 뒤, 장흥의 특산물인 소고기 3합(소고기 특수부위+표고버섯+키조개관자)으로 식사를 하고, 강진으로 이동하여 숙박을 하였다. 19일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친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여 이번 순례의 목적지인 병영성을 찾아, 선조님의 선정비 앞에 모여 숙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간단한 제례를 올렸다.

초헌관에는 병사공종회 양재 회장, 아헌관에는 행사를 주최한 도화회 용식 회장, 종헌관에는 병사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잊혀진 선정비를 찾아 알려준 이원승 박사(육군준장 예편, 전 카이스트 교수)가 헌작하고, 택재 도화회 총무가 집례를 맡아 집전하였다. 제례가 끝난 뒤 도화회원들은 하멜기념관 강당에 모여 “이상욱 전라병사를 중심으로 한 전라병영성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제



목으로 이원승 박사의 강연을 들었으며, 강연에 앞서 병사공종회에서는 이원승 박사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라병영성 양한모 발전추진위원장은 축사에서 “내가 10년을 넘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광주이씨 후손들처럼 조상님의 얼을 찾아 성지순례를 오는 후손들을 처음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옛 성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 관계로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고 하였으며, 양은희 병영면장은 해마다 “4월에 병영성 축제가 열리니 광주이씨 후손들이 관심과 참석으로 병영면의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는 주문을 하였다.

성지순례와 이원승 박사의 병사공 중심의 강연에 뜻깊은 시간을 마친 후, 회원들은 병영면의 맛집으로 소문난 “병영 연탄불 돼지갈비”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였다. 귀로에 오르면서 이왕 멀리까지 왔으니 그냥 가기 서운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목포 유달산에 들러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목포 시내를 둘러보았다. 귀로의 여정은 회원들에게 훌륭하신 선조님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욕되지 않는 후손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 약 1,000만여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그 모든 비용을 참조금으로 충당하니, 이 또한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복이 아니겠는가. 어느덧 어제의 출발지에 도착하니 해는 저물고 시간은 8시를 넘기고 있다.

병사공께서는 광원군(諱 克墩)의 아들 도정공(諱 世綸)의 6대손으로 1648년(인조 26) 통덕랑 공 지운(諱 祉運)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679년(숙종 5) 기미(己未) 식년시(式年試)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 전생·군기 주부, 감찰, 안평·낙안현감, 서산 군수, 도총 경력, 훈련 부정, 대구 영장, 오위장, 부산 첨사, 안악군수, 부호군, 정평 부사를 거쳐 1715년(숙종 41)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1717년(숙종 43) 가선대부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이때 대기근으로 고통에 시름하며 굶어 죽어가는 군민들에게 군량미를 풀어 구휼하고, 굶어 죽은 군민의 고아들을 모아 굶주림을 해소하여 준 것에 감사하여, 군민들이 선정비를 세워 고마움을 표시했다. 1721년(경종 1) 서거하니 묘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7-1에 있다. 계통은 극돈(克墩)-세륜(世綸)-수훤(秀萱)-윤덕(潤德)-여량(汝良)-효형(孝誦)-지운(祉運)-상욱(相旭)이다

- 도정공종회 도화회 총무 택재 기

## 좌의정공파종회

### 2026년 좌의정공파종회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3월 10일 좌의정공파종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2026년도 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종회 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제4대 회장 선출, 지파종회 부회장 지명 및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제4대 회장으로 당선된 근환 회장은 2026년 4월 1일 오전 9시,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소재한 파조이신 좌의정공 선조 묘전에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종원들과 힘을 모아 종사를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종회를 이루겠다” 는 내용의 고유문을 낭독하고 재배함으로써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어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소재한 한음 선조 묘전에서도 같

은 방식으로 고유제를 올리며 회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어 4월 25일에는 종회 관계자 일부를 초청하여 종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향후 3년간의 운영방침으로,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原)’ 과 함께 하면 즐겁다는 뜻의 ‘동행동락(同行同樂)’ 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종회의 투명한 운영과 종사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건의가 제시되었다. 회장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한 환담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곧 ‘동행동락’ 의 운영방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종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종회 운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종회는 지난주부터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단

체 대화방을 통해 종회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종회는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역사문화유산원으로부터 종가 및 종중 소장 유물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 공문을 접수하고, 양평 목왕리 종택에 보관 중인 한음 선조 유물 가운데 전신 영정을 포함한 6점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2일 종택에서 회장과 총무이사, 유물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반출하여 보존처리 후 반환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음 선조 영정 중 한 점이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임을 확인하였다. 문화유산원 책임연구원 이영은 박사의 협조로 박물관 담당자와의 연락이 이루어졌으며, 조만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종회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유물 보존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근환 기

## 참판공파종회 소식

### 2026년 보촌서원(浦村書院) 춘향제봉행

참판공파종회(회장 종성)는 2026년 4월 11일(토) 11시, 보촌서원(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길 1길 34-6 소재)에서 춘향제(春享祭)를 봉향(奉享)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참판공파종회 종성 신임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용두 삼임부회장, 주흥 재무이

사,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 이연공종회 주돈 前회장, 문경공파종회 종민 회장, 종덕 총무, 문재 현종, 광천부원군파종회 종준 부회장,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고창청장년회 종위 前회장, 좌통례공파종회 용주 회장, 태수 前회장, 용 前총무, 통제사공종회 형래 회장과 대래 총무,

칠곡 석담종회 병구 종손, 칠곡종회 승호 회장, 태동 영천 수호관리 위원장, 보춘서원 준수 수호 위원장, 용무, 영광 향교, 지역 유림 대표 등 내외 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도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보춘서원의 춘향제는 매년 음력 2월 24일 중정일에 지역 유림들이 주관하여 봉행하는 대표적 춘향제이다.

보춘서원은 정조 6년(1782년)에 영광 유림들에 의해서 세분의 유풍여운(遺風餘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하였는데 현재 서원은 주벽으로 참판공(휘 극기)을 비롯하여 음애공(휘 은), 이화정(휘 안례), 오희당(휘 룰) 선생 등 네 분을 배향(配享)하고 춘향제로 향사를 모셔 오고 있다. 처음에는 군서면 보라리에 보춘서원을 건립하고 제향해 오다가 1946년 군남면 동간리 오강 마을에 사우(祠宇, 신주를 모셔놓은 집)를 중건하였다. 1986년 서원의 부지가 협소하고 습하여 건물의 노후가 빨리 진행되므로 영광 향교 유림들

과 광주이씨 참판공과 종회가 협의하여 광주이씨 대종회와 종인들의 후원으로 보춘서원을 현 위치에 새로 건립하기로 하였다.

1988년 오강 마을에 있는 서강사를 철거하고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서변마을 광주 이씨 참판공과 후손들의 집성촌에 신당 서강사와 강당 보춘서원을 중건하고, 영광 향교 유림들과 광주이씨 참판공과 종회가 협의하여 성균관의 추천을 받아, 음애공(휘 은)의 부친이신 참판공(휘 극기)을 주벽으로 모시고 음애공, 이화정공, 오희당공, 네 분의 광주이씨 선조들을 매년 2월 말 정일에 춘향제로 봉향하는 것이다. 아울러 춘향제의 목적을 살펴보면 서원에 모셔진 선현의 추모 및 학덕과 충절을 기리고 유교의 전통 계승인 제례 절차의 정신을 실현하며 지역 공동체



사로서 문중, 유림,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여 교육적 전통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는데 있다. 이날은 화창하고 생동감 넘치는 봄날에 보춘서원 제향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옛 선인들의 숭고한 뜻과 예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춘향제에 참석하신 모든 종친에게 무한한 감사사를 드린다.

- 참판공파종회 총무이사 종현 기

### 좌통례공파종회 소식

#### ■ '시조묘소 수호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좌통례공파 칠곡종회(회장 승호)는 지난 30일 경북 칠곡군 신동 소재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시조묘소 수호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였다. 이번 임원회의의 핵심 안건은 광주이씨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인 시조묘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회의 결과, 시조묘소 수호관리 위원장에는 그간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묘역을 돌봐온 태동 위원장이 재선임(연임)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수만, 종석, 수호, 상기 종인이 각각 선출되었다.

'시조묘소 수호관리 위원회'는 비록 대종회 소속이나, 관례에 따라 칠곡종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선출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소재의 시조 묘소와 추원재를 비롯한 주변 시설물의 상시 정비 및 관리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봉행되는 묘제(墓祭)의 전반을 주관하는 중책을 맡는다. 특히 이번엔 연임된 태동 위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영천 시조 묘역의 보존과 묘제 봉행에 있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 칠곡종회 임원진은

문중의 전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할 책임자로 판단, 재선임을 확정 지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칠곡종회 승호 회장은 "시조묘소 수호와 관리는 과거 영천 최씨 문중과 우리 광주이씨 문중의 선조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구어낸 가치 있는 숭조(崇祖) 문화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호 회장은 "이는 단순히 묘역을 돌보는 일을 넘어, 칠곡 문중이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업"이라며, "우리 세대에서 끊기지 않고 후대에 영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소중한 책무인 만큼,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원회의를 통해 시조묘소 수호관리 위원회 구성을 마친 칠곡종회는 향후 영천 시조 묘역의 환경 정비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중의 결속력을 다지고 조상의 덕을 기리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 칠곡종회 2026 입춘회 성대히 개최

좌통례공파 칠곡종회(회장 승호)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칠곡 동산재에서 '2026년 입춘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송화 가루가 날리는 완연한 봄날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 대종회와 전남 영광 참판공 후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5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하여 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종회 주홍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좌통례공파종회 용주 회장, 참판공파종회 종성 회장과 종현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문중의 소식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수팔 회장과 승호 칠곡종회장이 힘을 합쳐 새로운 음향 시스템을 도



입하였고, 칠곡 종인들이 동산재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등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해 더욱 쾌적한 행사 환경을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행사 중 진행된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전 대구경북종친회 수생 회장이 신임 입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수생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종인들에게 더욱 가치 있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칠곡종회 승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입춘회 행사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선조들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광주이씨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모두가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기를 마친 수팔 회장은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직접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며 종중의 미래 세대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공식 행사는 평소보다 다소 일찍 마무리되었으나, 종인들은 흥겨운 노래와 함께 어울리며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종인은 "전국의 일가친척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니 광주이씨 일원이라는 것이 다시금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 칠곡종회 문화이사 수전 기

### 문숙공파총회

#### ■ 2026년 문숙공파총회 정기총회 개최

문숙공파총회(회장 용중)에서는 2026년 4월 5일(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298-3에 소재한 종중 회관 회의실에서 수도권권을 비롯하여 원주, 대구, 포항 등 원근 각지에서 온 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성원 보고에 이어 개회를 선언하고 부의 안건 상정 및 심의에 들어갔다.

먼저 제1호 안건인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제2호 안건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도 재정 규모가 워낙 빈약한 관계로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없었으나 한 푼이라도 종재를 절약하고 아껴 쓰자는 데 뜻을 모으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 제3호 안건은 종택 노후 창문 긴급 교체공사 및 공사비 회계간 전·출입 처리 등 사업의 선 시행에 대한 추



인 건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모든 사업은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하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추진 가결하였다.

이상 본 의제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마치고 마지막 제4호 안건은 참석 종인들의 즉석 제안 또는 건의 사항을 받아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한 안건으로 문숙공파 종중 소유 농지(전·답)에 대한 명의 신탁자 변경 또는 매각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수익적으로 종재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문숙공파재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안, 문숙공 파조 신도비 주변 철책 등 시설 정비와 묘역 주변 조경 보완 공사가 시급한 문제이나 종중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므로 신도비 기탁 파손 부분 보수와 묘역 주변 고사된 향나무만 우

선 제거하는 안, 문숙공 시제 봉향 제물 준비 방법 개선 및 차일 제작 안, 종회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안, 본 종회 임원(이사)의 수를 지역 소 종중 안배 차원에서 증원하는 것과 회의 참석 여부 현실화 필요성에 따른 규약 일부 개정 안, 종재 손실자의 원금 상환 완료에 따른 채무종료 조치 및 부동산 가압류 해지 안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문숙공 서세 600주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회의 진행 동안 참석 종인들은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게 종회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적극 개진하고 질서있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은 한층 성숙된 회의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총회를 마친 후 종인들은 회관 건물내 식당에 마련된 오찬을 함께하면서 답소를 나누다가 시간에 쫓겨 가을 문숙공 파조님 시제때 재회를 기약하고 서둘러 귀가길에 나섰으며, 용중 회장을 비롯한 일부 종인들은 문숙공 파조님 묘소를 찾아 한식 성묘를 끝으로 금년도 문숙공파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바쁜 일상과 먼 길에도 적극 참석해 주시고 원활히 총회를 마칠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종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문숙공파총회 총무 은래記

### 목사공파총회

#### ■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목사공파총회(회장 춘신)는 5월 2일 재직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이씨대종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호 안건 2025년 수입, 지출 결산 결의와 제2호 안건 2026년 수입, 지출 예산(안) 결의, 그리고 제3호 안건 종회 수익사업(태양광 발전소) 결의, 제4호 안건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지급 결의, 그리고 제5호 안건 신임 감사(이종수) 선임 결의 건을 의결 하였다. 목사공파총회는 재정난으로 종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종회 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재정난을 타개하고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모두의 깊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종회 수익사업이다. 종



회는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춘신 종회장은 현재의 종회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제안하였고 종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종회 태양광 발전소 수익사업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종의 총무이사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의 사업 수익성 검토자료를 준비하여 종회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업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사업 수익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대의원의 질의 응답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3호 안건 종회 수익사업(태양광 발전소) 결의는 직접 비밀투표로 결의 하였다.

종회 수익사업(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대의원들은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종회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요청하였고 일부 대의원들은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긍정적인 견해도 제시하였다. 다양한 의견 공론화를 통하여 제3호 안건 종회 수익사업(태양광 발전소) 결의 건은 가결되었고 춘신 종회장은 투명한 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사공파 소계파별로 한 명씩 추진 위원을 선임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종회 재정 수익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종회는 가을 이후에 200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매수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종회 재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 목사공파총회 총무이사 종익記

## 독립운동가 이윤재(李允宰 호 환산(桓山). 한산. 한뫼) 선생



한글학자 주시경(周時經) 선생과 사숙하면서 한글 연구의 기초를 닦은 이윤재 선생은 1888년 12월 24일 경상남도 김해군 우부면 답곡리(畓谷里 현 김해시 대성동)에서

아버지 이용준과 어머니 이임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환산(桓山). 한산·한매·한뫼이며, 다른 이름(前名)은 이여민(李麗民)과 이검신(李儉臣)이다. 1894년에서 1905년까지 11년간 마을의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공부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독파하였으며 재주가 비상하여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1905년부터 1906년까지 김해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대구의 계성중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09년에서 1911년까지 기독교 계통의 인사들이 설립한 김해 합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1911년부터 1913년까지는 기독교 계통 학교인 마산 창신 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글과 역사 과목을 가르쳤다. 1915년에

서 1917년까지 3년간 일본 도쿄(東京)에 머물면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과를 다니며 학업에 정진하고 귀국하여, 1918년에서 1919년까지 2년간 평북 영변(寧邊)에 있는 승덕학교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쳤으며, 재직중이던 1919년 3월 2일 독립선언서 40여 장을 등사 배포한 사실 때문에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7월 경 풀려났다.

이후 일본 유학을 도모하였으나 전과(前科)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중국 유학을 결정하였다. 1921년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뒤, 독립운동가인 신재호(申在浩)를 찾아갔다. 1921년에서 1923년까지 베이징대학 사학과에 다녔고, 신재호와 만나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수용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신재호가 강조한 민족의 영웅(英雄) 상고사(上古史)에 대한 사관, 그리고 일제에 대한 비판 등을 계승하였다. 1922년 흥사단에 입단청원서와 이력서를 내고 문답식에 합격하여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ㅍ문답식은 흥사단 원동임시위원회 위원장인 안창호(安昌浩)가 맡았다. 이후 안창호의 노선에 입각하여 흥사단 수양동우회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3년 여름 귀국하여, 1924년 9월부터 오산학교 교원으로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한글의 역사를 교육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강제로 해직되었다. 이후 서울로 와서 1925년 4월부터 1927년 3월까지 낙원동에 있던 협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때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 윤우열(尹又烈)을 도와주었으나, 1926년 윤우열이 이른바 “허무당(虛無黨) 선언서 배포사건”으로 체포되자 일제 경찰은 “갑종요시찰인”으로 규정하고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신학교, 동덕여학교, 연희전문학교, 배재학교, 중앙학교 등에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서울 신촌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를 갈 때는 단 5전의 전철삿을 일본인에게 주기 싫어서 걸어 다닌 일화를 남겼다. 특히 경신학교 교원 시절인 1933년과 1934년 사이에는 제자들에게 민족의 얼을 지녀야 나라와 국어도 지킬 수 있다고 역설

하였다. 또한 자신은 독립투쟁의 전선에 매진하다가 감옥에서 죽게 되더라도 “너희들은 틀림없이 독립을 보리라”고 하는 등 학생들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1930년 10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동아일보에 「성웅 이순신」을 43회 연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연재물은 1931년 9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성웅 이순신」으로 출판되어 초판이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어 두 번째 판을 발매하였으나, 다 팔리기도 전에 일제 관헌이 “조선 사람에게 읽힐 것이 못 된다” 하여 발매금지 처분을 하였으나, 광복이후 1946년 「성웅 이순신」은 통문관에서 재 발행되었다. 한편 중국베이징 시절 흥사단원으로 활동한 뒤 1923년 국내로 들어와서 흥사단의 노선을 이은 수양동맹회, 수양동우회, 동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수양동우회사건을 일으켜 1937년 6월 7일 불잡혀 서대문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일제 당국은 “예전부터 민족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살아왔던 자”로 결론지었다. 이때 1938년 7월 29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옥고를 치렀고, 이후에도 일제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편 한글운동의 핵심 인물로서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였다.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은 민족어의 규범 수립이란 한글 맞춤법의 통일, 표준어의 사정(査定), 외래어 표기법 제정 등을 말한다.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에 참여하였다. 1930년부터 조선어학회가 추진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위원, 수정위원, 정리위원으로 3년간 활동하였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글에 한자를 넣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순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한국어 표준어 사정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1935년 1월 조선어학회가 한국어의 표준어를 사정할 때 사정위원과 수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선생은 16만 어휘에 달하는 우리말의 뜻을 풀이를 제대로 한 민족어대사전 편찬에도 참여하였으며, 1929년 10월 31일 이극로(李克魯)가 한글날

에 조직한 조선어사전편찬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상무위원에 선임되었다. 1931년 1월 6일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 간사에 선임되었고, 이후 조선어사전 편찬의 전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 발생 전까지 우리말 주해 작업에 몰두하였다. 아울러 1933년 겨울부터 단독으로 중사전 규모의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시작하여 2년 동안 작업하였다. 1937년 6월에 이른바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1941년 11월 17일 고등법원에서 무죄 방면 되었다.

1942년에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한글 수호운동이 민족독립운동임을 분명히 밝히며 “민족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고 또 민족 운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조선어학회의 동지들과 함께 언어 독립운동인 한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탄압하였다.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42년 10월 함남 흥원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일제 형사들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했다. 결국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3년 12월 8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선생의 묘소는 국립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제1-1 499호)에 안치되어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을 추서하였다. 선생에 대한 김해시 한글박물관과 어록비, 조형물, 추모비가 나비공원 내에 있다.

선생의 어록 「너희들은 독립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 일본의 총칼 밑에 눌러 산다고 언제나 이럴 줄 알아서는 큰 잘못이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지금 형세로는 감옥에서나 죽게 생겼지만 너희들은 대명천지 밝은 날에 내 나라 다시 찾고 독립 국민으로 떳떳이 살날이 꼭 올 것이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독립을 보리라, 그러자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1929년 경신학교에서 환산 이윤재 선생의 말씀)

- 廣李독립유공자유족회 총무 호순記

## 재경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재경화수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종친 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4월 27일 열린 4월 월례모임에서는 신임 용두 회장(전 상임부회장) 주관 아래, 11계 간사단이 모여 새 집행부 인선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직의 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 원로 고문단과 자문위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원로 고문단에는 옥재(전 대총회 회장) 고문을 비롯해 13



명이 선임되었으며, 자문 위원으로는 종민(문경공파총회 회장)을 포함한 수도권 각 지파 회장 10

명을 선임하였고, 부회장으로는 결재(광원군파총회)의 4명 선임, 감사는 종균(좌통례공파총회), 총무(재무)유사는 윤태(사인공파총회), 홍보유사는 태호(광원군파총회)로 구성하였다. 신임 집행부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두 회장은 "자문위원과 각 지파 회장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화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이씨 종친 여러분들께



광주이씨 대종회 전 상임 부회장 용두 깊은 감사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대종회 상임부회장 연임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께서 추대를 해주셔서 부족한 많은 제가 우리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회장에 선임되어 영광의 막중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화수회 발전과 광주이씨 미래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각오와 약속을 보내 드리오니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광주이씨 종친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바로 화수회입니다. 화수회가 단합하여 잘 운영되어야만 대종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종친들께서는 긍지와 자부심에 서로 소통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선조님들을 위한 승조정신을 생활화하고 종친들 간에는 서로가 늘 돈독하게 지내는 소통과 존경은 우리 후손들이 백대 지친을 외치며 따라올 수 있는 모범이기에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각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새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종친들간에 화목과 발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화수회 조직은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화합단결을 우선시하며 그간에 우리 광주이씨를 위해 봉사해 주신 종친들을 원로고문단과 대종회 발전에 앞장서 일하시는 각지파 회장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상선약수 근본의 화수회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부회장은 결재(광원군파)의 4명으로 감사는 종균(좌통례공파) 총무, 재무는 윤태(사인공파) 홍보유사는 태호(광원군파)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화수회 발전을 위한 고견과 충고로 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4월 20일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회장 용두 올림

## 봄 길 위에 이어진 발걸음 광주이씨 산악회 4월 원거리 산행기



광주이씨 산악회(회장 종덕)는 지난 2026년 4월 26일, 서울 사당역을 출발해 충남 서산의 상왕산 일원을 찾았다. 충청의 산과 역사, 사람과 이야기를 잇는 이번 원거리 산행은 <상왕사-해미읍성-고란사>로 이어지는 세 구간 코스로 구성되었고, 서른 명의 회원이 함께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전원 무사히 귀경하였다.

수원·양평·포천·인천 등 각지에서 모여든 회원들은 이른 아침임에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두 시간 가까운 이동 거리에도 불구하고 30명이 함께했다는 점은, 산악회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애정과 참여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2월 산행과 3월 시산제에 이어 4월 원거리 산행까지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산악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산행은 '함께 걷는 배려'가 돋보인 일정이었다. 세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된 코스는 버스 이동과 충분한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연로한 회원들도 무리 없이 전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여든 여섯의 원로 회원이 끝까지 완주하며 "아흔 살까지 함께 걷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장면은, 산악회가 단순한 산행 모임을 넘어 세대와 시간을 잇는 공동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첫 방문지인 개심사 앞뜰에서는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왕산 일대의 명물인 청벚꽃과 겹벚꽃이 절정을 이뤄, 일 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장관을 펼쳐 보인 것이다. 좋은 날씨와 어우러진 화사한 봄빛 속에서 회원들은 잠시 걸

음을 멈추고 계절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렸다.

시산제에 이어 이번 산행마저 하늘이 도운 듯한 하루였다. 점심은 예산 수덕사 아래 토속음식점 '산촌'에서의 산채 정식이었다. 서산 토박이 회원의 추천답게 음식은 정갈하고 푸짐했으며, 신선한 재료와 친절한 서비스는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식사 자리에서는 "다시 수덕사를 찾게 된다면 꼭 다시 오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산행의 즐거움은 배가되었다. 여정 중 해미읍성에서는 넓은 평지 덕분에 단체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또 귀경길에 들른 고란사의 마애불상 앞까지 원로 회원들이 거뜰히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산행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실감났다.

건강한 웃음과 서로를 북돋는 박수가 길 위에 오래 남았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또 하나의 잔잔한 이야기가 더해졌다. 노래 한 곡으로 웃음을 안긴 회원의 여흥에 이어, 종덕 회장의 산악회 장직 사임과 신임 회장 추대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산악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가 이어졌고, 영교 신임 회장은 그 비전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다. 산행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이 순간은, 이번 원거리 산행을 더욱 뜻깊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이번 4월 원거리 산행은 이름 그대로 '떨리' 떠났지만, 마음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여정이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웃음과 격려,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광주이씨 산악회는 다시 한번 길 위에서 공동체의 힘을 확인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회원들의 발걸음을 이끌 것이다.

- 산악회 총무 영교 기

지난 호(419호) 11페이지 기사 오기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 <시산제 협찬금품 지원현황> 표

- 광릉부원군 총회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 광천부원군 총길은 광릉부원군 총길을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5월 정기 산행은 2026. 5. 31(마지막 일요일)

우면산 완만 둘레길 걷기 코스입니다. (4번째 일요일인 24일은 부처님오신날로 1주 연기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산행 코스 사당역 출발 우면산 둘레길 코스
- 출발 시간 오전 10시 (9시 50분 집결) 하산(오후 1시경) 후 점심 식사
- 출발지 사당역 3번 출구밖 (우성 상가 GS25 앞)
- 문의 윤태 등반대장 : 010-8358-5399 / 영교 총무 : 010-3125-9648

중인 칼럼

전자족보 편찬에 즈음하여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광주이씨 대종회가 약 40여 년 만에 대동보를 새로 편찬하게 된 것은 우리 종중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종이 족보가 아닌 전자족보 형태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한층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자족보는 단순히 종이 족보를 컴퓨터로 옮겨 놓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종중의 역사와 혈통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영구 보존하는 일이며, 앞으로 수십 년, 나아가 백 년 이후의 후손들까지 참고하게 될 중요한 역사 기록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전자족보의 편찬은 기술적 편의성만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성, 그리고 역사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전자족보 제작을 앞두고, 특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족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 사료라는 인식 전자족보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종중의 역사 기록이다. 따라서 그 관리 역시 역사 기록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임의 수정 방지 체계 구축 족보 내용이 개인에 의해 임의로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수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3. 수정 이력의 영구 기록 내용이 수정될 경우, 수정자·수정 일자·수정 사유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변경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입력과 승인 권한의 분리 자료 입력과 최종

반영 권한을 분리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친 후에만 족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5. 기존 족보 원본의 보존 과거 대동보와 각 파보 등 기존 족보는 스캔 또는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보존하여 원본 자료로 남겨야 한다.
6. 자료 출처의 명확한 기록 묘지명, 문집, 파보, 지파 기록 등 모든 정보에는 가능한 한 출처를 명시하여, 후일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세대 및 생몰 연도 오류 검증 체계 세대 순서나 생몰 연도 등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8. 동명이인 식별 체계 마련 동명이인이 많은 족보의 특성상, 인물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9.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현대 인물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 범위와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10. 자료 입력 기준의 통일 이름 표기, 한자 사용, 생몰 연도 표기 방식 등 자료 입력 기준을 통일하여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11. 지파별 자료 제출 체계 구축 각 지파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료 제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편찬위원회의 검증 역할 강화 편찬위원회는 단순한 편집 기구를 넘어, 자료 검증과 기준 설정을 담당하는 중심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13. 데이터 장기 보존 체계 구축 전자족보는 서버 장애나 시스템 변경에도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백업과 이중 보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4. 시스템 독립성 확보 제작 업체가 변경되거나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15. 데이터 소유권의 명확화 전자족보의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반드시 종중에 귀속되도록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16. 장기 운영 계획 수립 전자족보는 제작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 향후 관리와 업데이트를 위한 운영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17. 종친 열람 편의성 확보 검색 기능, 가계도 표시 등 종친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18. 사진 및 사료 자료의 축적 묘소 사진, 묘지명, 문집 자료 등 역사적 사료를 함께 축적하여 전자족보의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19. 전자족보 관리규정 제정 전자족보의 수정, 열람,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이라는 인식 전자족보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족보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종중 역사 기록의 새로운 방식이다. 따라서 기술적 편리성보다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동보 편찬이 단순한 족보 제작을 넘어, 우리 종중의 역사와 전통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근환 김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으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계좌번호는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 농협은행 : 301-0290-6787-91

지로 납부는 이용자가 너무 적어 2026년 3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기존 지로 납부 이용자들께서는 기업 또는 농협은행으로 이체 부탁드립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시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6年 5月 1日

<제420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 주 영  
 편집인 : 이 주 홍  
 주 간 : 이 중 덕  
 발행처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

#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6년 4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창재	10,000	전북 순창	이종화	10,000	세종 도움	이종순	10,000	서울 서대문
이승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승환(이명재자)	10,000	경기 안산	이윤래	10,000	부산 북구
이종욱	10,000	충북 청주	이종길	10,000	경기 안양	이은래	10,000	경북 울진
이영균	20,000	인천 서구	이갑수	10,000	경기 안산	이재동	10,000	경북 영덕
이종열	10,000	충남 논산	이종일(이준재자)	10,000	경기 의왕	이재혁	10,000	경북 영양
이동환	10,000	대구 북구	이갑재	10,000	경기 군포	이종각	10,000	경북 울진
이주영	10,000	경북 칠곡	이일재	10,000	서울 노원	이종국	10,000	경북 울진
이수재	10,000	서울 종로	이종완	10,000	경기 의왕	이종경	10,000	경북 경주
이수야	10,000	대구 북구	이종문	10,000	경기 안양	이종언	10,000	경북 울진
이수장	10,000	서울 구로	이문수	10,000	경기 안양	이종열	10,000	경북 울진
이용관	10,000	인천 부평	이현수	10,000	세종 조치원	이종훈	10,000	경북 울진
이증수	100,000	세종 연서	이종민	10,000	충남 당진	이용길	10,000	부산 북구
이영수	10,000	경기 의정부	이종수	10,000	경기 안양	이천래	10,000	경기 용인
이종오	20,000	전북 군산	이홍수	10,000	경기 시흥	이태환	10,000	경북 울진
이철재	10,000	경기 남양주	<b>문숙공파총회</b> 72X10,000=720,000			이형래	10,000	경북 울진
이용문	10,000	대전 유성	이강래	10,000	경북 울진	이흥래	10,000	경북 영양
이근두	20,000	인천 강화	이경래	10,000	경북 영양	이흥래	10,000	충남 천안
이충재	10,000	경북 문경	이광웅	10,000	경북 울진	이용욱	10,000	경기 김포
이윤진	1,000	경기 성남	이극래	10,000	강원 원주	이정재	10,000	대구 북구
이석주	10,000	강원 철원	이극래	10,000	강원 원주	이용환	10,000	부산 북구
이재원	20,000	대구 달성	이근래	10,000	대구 달서	이용실	10,000	경북 포항
이준희	10,000	인천 부평	이금환	10,000	경북 울진	이경재	10,000	경기 의정부
이덕태	30,000	경남 진주	이길정	10,000	경북 포항	이병택	10,000	경북 포항
이남재	10,000	경기 여주	이대래	10,000	경기 안양	이용표	10,000	서울 강동
이천수	1,000	충북 음성	이목래	10,000	대구 동구	이중재	10,000	경북 구미
이종진	10,000	서울 광진	이병곤	10,000	서울 동대문	이기호	10,000	경기 화성
이수생	1,000	대구 달서	이용문A	10,000	대구 수성	이종래	10,000	대전 중구
이종은	10,000	충남 예산	이병조	10,000	경북 울진	이용윤	10,000	강원 춘천
이용호	10,000	광주 북구	이창재	10,000	경남 창원	이관래	10,000	대구 달서
<b>성남화수회</b> 10X10,000=100,000			이병헌	10,000	대구 북구	이원래	10,000	부산 금정
이용기	10,000	경기 성남	이석래	10,000	부산 해운대	이성래	10,000	경기 시흥
이성재	10,000	경기 광주	이석성	10,000	경북 울진	이효재	10,000	경북 포항
이명수	10,000	경기 성남	이승재	10,000	경북 울진	이정래	10,000	부산 강서
이승재	10,000	경기 성남	이용관	10,000	서울 중구	이상수	10,000	경북 울진
이경선	10,000	경기 광주	이용덕	10,000	대구 달서	이환래	10,000	부산 금정
이정수	10,000	경기 성남	이용락	10,000	서울 강동	이창래	10,000	대구 북구
이호순	10,000	경기 성남	이용문B	10,000	경기 수원	이종택	10,000	경남 김해
이성문	10,000	경기 성남	이용발	10,000	서울 강동	이만규	10,000	인천 연수
이길휘	10,000	경기 성남	이용석	10,000	경북 울진	이용활	10,000	강원 인제
이주암	10,000	경기 성남	이용중	10,000	경기 성남	이국원	10,000	경북 영주
<b>현감공파총회(문경공파)</b> 15X10,000=150,000			이용익	10,000	서울 양천	이혁래	10,000	경북 구미
이종필	10,000	경기 안양	이용창	10,000	경북 울진	이흥래	10,000	경북 영덕
			이용칠	10,000	부산 연제	이종철	10,000	경북 울진
			이용팔	10,000	대구 서구	이춘래	10,000	서울 양천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